



군종주보

2026년 6월 7일(제1303호) 지극히 기뻐하신 그리스도의 상채 성별 대축일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메마른 마음을 살리는 양식”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기 위한 양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몸의 허기만큼이나 마음과 영혼의 허기도 크다는 사실을 느끼곤 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외로움과 불안, 지침과 공허함이 자리할 때가 있습니다.

군 생활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몸으로 버티는 곳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며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외로움과 부담 속에서 마음이 지치고, 내 안의 열정과 희망마저 메말라 가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좋은 말씀만 남기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과 피를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성체성사는 단순한 상징이나 기념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시는 살아 있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이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고 놀랍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서로 말다툼까지 벌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은 충격적이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

다. 어쩌면 바로 그 놀라움이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성체를 너무 익숙하게 받아 모시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매주 미사에 참여하고 자연스럽게 성체를 모시다 보니, 처음의 경외심과 떨림이 무뎠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복음 속 유대인들의 놀라움은 오히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받아 모시는 성체가 참으로 주님의 몸과 피라는 사실 앞에서, 다시금 놀라고 감동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 안에 모시게 하시며 함께 머무르기를 원하십니다. 성체 안에서 주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방식으로 우리 삶 안에 들어오십니다.

오늘 성체 성혈 대축일을 지내며, 우리가 얼마나 큰 은총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익숙함 속에 무뎠었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깨어나, 성체 안에 살아 계신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청합니다. 우리 안에 머무르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메마른 마음을 새롭게 적셔 주시고, 지친 삶 안에 다시 살아갈 힘과 참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강준(시도요한) 신부
동해(해군 제1함대사령부) 성당 주임

제 1 독 시 회 답 송 제 2 독 시 부 속 기

신명 8,2-3.14ㄴ-16ㄱ
◎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1코린 10,16-17
천사의빵 길손음식 자녀들의 참된음식 개에게는 주지마라.
이사악과 파스카양 선조들이 먹은만나 이성사의 예표로다.
참된음식 착한목자 주예수님 저희에게 크신자비 베푸소서.
저희먹여 기르시고 생명의땅 이끄시어 영생행복 보이소서.
전지전능 주예수님 이세상에 죽을인생 저세상에 들이시어,
하늘시민 되게하고 주님밥상 함께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복 음 영 성 제 송

요한 6,51-58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진주교 군중교구시(군 시묵 50년사)

조 신부가 육군본부 신부로 부임하자 당시 육군본부 작전국장 이한림 준장이 전쟁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북 잠사회사의 건물 관리인이자 회사 간부였던 김종호와 교섭하여 임시로 빌려 사용하게 되었다. 군인들이 내부를 단장하고 제대와 장례를 마련하였고, 주일이면 신자 및 예비 신자 장병과 가족들, 그리고 근처의 민간인 신자들로 가득하였다. 1955년 2월 육군본부가 서울로 옮겨갈 때까지 사용된 이 임시 성당에서 168명이 영세하였다.

군중 제기생 조인원 신부는 천주교 군중 대표신부로서 육군본부 인사국 군목과에 근무하였다. 당시 육군본부 군목과에는 천주교와 장로교 그리고 감리교 대표가 근무하고 있었고, 각 교계에서 과장직을 1년씩 돌아가면서 맡기로 되어 있었다. 초대 과장 장로교의 김형도 목사에 이어 1952년 4월 1일 조 신부가 제2대 군목과장에 보임되었다. 조인원 신부는 군중신부들의 부서 배치, 보급품 및 미사 예물의 배당, 군중신부 선발 등 천주교 군중 실무 책임자로서도 활동하였다. 조병식(문관보좌관)과 원산(元山)에서 남하한 성 베네딕도회 수녀들(당시 대구 동인동 거주)의 도움을 받으며 육군본부 신자 장병들의 신앙생활 향상에 힘을 기울여 장성 및 장교 10여 명으로 육본 가톨릭 장교회(회장 : 이한림 준장)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5) 전방지역에서의 군중활동

전방의 군중신부들은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는 부대를 따라 종군하였다. 그들은 전후방을 교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대부분 전방 사단에 배치되는 것을 꺼려하였다. 전방에는 신자들이 많지 않고 기동력도 부족하며, 사단 사령부에 배치되면 예하 부대는 물론 군중신부가 배속되지 않은 인근 여러 사단의 군중업무도 혼자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부대 사정에 따라 자동차를 제공 받기도 하였지만 대개는 도보로 혹은 지나가는 트럭에 편승하여 부대의 위치를 물어 가며 찾아가곤 하였다. <다음 주에 계속>

『진주교 군중교구시(군 시묵 50년사)』 발췌, 진주교 군중교구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 복음목상 </div>	<p>-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p> <p>한 모금, 한 조각</p>	<p>한 모금으로 웃을 수 있고.</p> <p>한 조각으로 행복해지는 그런 먹거리가 있지.</p>	<p>그 안에 담긴 큰 사랑에 배가 든든해져 행복해지더라.</p> <p>그런 사랑이 여기 있지.</p>	<p>◆ ‘군중의 시간’ 3주차 프로그램 〈군장병의 편지〉 원고 모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량: A4 빈쪽~한쪽 - 소재: 군 생활 에피소드, 소감, 진역 이후의 계획 등 소재 무관(신창곡 기능) - 기한: 연중 상시 접수 - 접수: 군중교구 홍보국 (hongbo@gunjong.or.kr) - 신장 시 소장의 모바일 쿠폰을 드립니다. - 장병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	---	---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상화이야기

십자가 앞의 성 도미니코



프라 안젤리코 공방, 1442년경 제작 / 프레스코화, 155x80cm
 산 마르코 수도원 수련 수사 방 16~18번, 이탈리아 피렌체
 사진 제공: Scala / Ministero per i Beni e le Attività culturali / Art Resource, New York

도미니코회 산 마르코 수도원 기숙사 중 남쪽에 있는 수련 수사의 방(15번~21번 7개)은 온통 하얀 벽과 천장에 작은 침대와 책상이 있고, 한쪽 벽에는 1440년대 초 프라 안젤리코 공방이 그린 프레스코화가 걸려 있다. 각 프레스코화에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과 그 아래에서 기도하는 성 도미니코 성인(도미니코회 창립자)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평범한 흰 배경 위에 그려진 선명한 붉은 피는 손과 발, 옆구리 상처에서 떨어져 나와 보는 이를 향해 ‘분출’되고, 십자가 받침을 타고 메마른 땅으로 흘러내린다. 이 프레스코화들은 도미니코회에 막 입회한 약 14~16세의 어린 수련 수사들을 위해 제작된 것으로, 그들의 신앙 교육과 관상 훈련을 위한 것이었다.

이 프레스코화는 지리적·공간적 묘사를 철저히 배제하고, 순백의 배경 위에 최소한의 요소만 남겨 둬으로써 ‘피의 묘사’에 시선을 집중시키는데, 특히 피를 그릴 때 실제로 사용된 적철석(hematite, 혈석) 안료는 고대와 중세에 실제로 혈액과 유사한 색을 지닌 광물로 여겨졌기에, 재료 자체가 예수님의 피에 대한 상징성을 강조한다. 텅 빈 흰 벽에 단출한 방 구조는 붉은 핏자국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어, 14세기 도미니코회 수도자이자 저술가 야코포 파사반티의 표현을 빌리면, 마치 피가 벽 위에서 “비명을 지르는” 듯한 시각적 효과를 낳는다. 이렇듯 빈 공간 속에서 ‘피’는 단순한 육체적 고난의 흔적을 넘어 구원의 희생을 실질적으로 이룬 실체로 제시되는데, 도미니코회 신학에서는 구원 행위를 완성한 것이 예수님의 몸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몸에서 흘러나온 피였기 때문에, 땅 위로 스며드는 작은 핏줄기 하나 하나가 단순한 서사적 디테일이 아닌 구원 행위 자체를 담고 있는 표지로 이해되었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들을 위한 미사 - 성체 성별 대별일: 농경 김정준 신부

◆ 교구장 동정

- 과훈단(과학화전 투훈련단) 성당 사목방문
 때: 6월 7일(주일)
-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강의 및 미사
 때·곳: 6월 8일(월), 천호동 성당
- 주교 영성 모임
 때·곳: 6월 8일(월)~9일(화),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센터
- 주교 현장 체험
 때·곳: 6월 9일(화), JSA
- 호국영령을 위한 합동 위령미사
 때·곳: 6월 11일(목) 11:00, 국립대전현충원

“작은 가정교회” ■ 이루는 온인성사의 해